

국가직 지역인재 최종학력 지원 총력

도교육청, 9급 수습직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특강... 모의면접·개인발표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특성하고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과, 23일 세 차례에 걸쳐 창조내내 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특강을 진행한다.

이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면접 시험 대응력을 높이고 나아가 최종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에 도내에서는 2021년 9개교 16명, 2022년 10개교 24명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4개교 7개

직렬에서 14명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개별면접과제 작성지도, 계열별 모의면접 평가 후 개인별 맞춤 피드백, 면접 실시 전 최종 리허설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

행 평정요소에 관한 맞춤형 면접특강으로 최종 합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필기시험 합격 학생들에게 맞춤형 면접특강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최종 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6개월 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성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며칠 앞둔 2일, 전주사대부와 3학년 교실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라”

서거석 교육감, 수능 치르는 고3 수험생에 응원 메시지 전주사대부고 찾아 격려... 10일까지 도내 고교 방문 격려

“수험생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힘 내세요.”

서거석 교육감이 2일 고3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험생활은 그야말로 온갖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고 최선을 지켜야 하는 고행의 길”이라면서 “결에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결국 혼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활의 외로움과 고독은 여러분을 내적으로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전주사대부고를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10일까지 전라고와 완주 한별고, 군산 전복외고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내일 전주MBC 공개홀서 '독서토론탐미당 결승전'

전주MBC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독서토론탐미당 결승전이 4일 전주MBC 공개홀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초등부 결승은 '논술팀(전주은빛초등학교) 대 '불사조'(전주민성초등학교), 중등부 결승은 '아이비퀵리저스'(용북중학교) 대 '지저서'(전주가전중학교), 고등부 결승은 '빅파이'(고창고등학교) 대 '필요충분조건'(전주고등학교)의 대결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결승전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순으로 진행된다. CMO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안전할까(초등부), '현재를 즐기기 위해 시간을 쓰는 삶이 더 행복하다'(중등부),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등부)의 논제로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결승전 심사위원으로는 김미숙(서평가), 민병곤 교수(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신지영 교수(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송승훈 교수(이정부광동고등학교), 남궁인 작가(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16강, 8강, 4강(준결승)을 거쳐 결승에 이르게 됐다. 각 팀은 학생 3인과 지도교사 1인으로 구성, 총 60여 팀이 열린 경쟁을 벌였다.

한편 독서토론탐미당 '복작복작'은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방영된다. /정은성 기자



2일 전주그랜드힐스테에서 전북미래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미래학교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 도모

도교육청, 교직원 등 대상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과정 운영 사례 탐색·분임 토의 등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전주그랜드힐스테에서 전북미래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성과보고회는 △전북미래교육 기본 계획 안내 △전북미래학교 1차년도 정책연구 보고 △전북미래학교 실천 사례 및 전시 등을 통해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알리고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학력신장, 디지털·AI 기반의 교육활동 및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102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2024학년도 신규 66개교를 포함해 총 132개교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미래학교의 모습과 교육활동 전시물 등을 둘러본 후, 문고답하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탐색했다.

실천 사례 발표에는 유치원 1개교, 초·중·고 5개교, 중등 3개교가 참여했다. 유·초등에서는 △인사발은샘유치원 경계를 허물어, 유치원 교육을 바꾸자(유)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미래학교에서 뭘 배우지? △미래학교 생태전환 교육과정 운영 전북미래학교 교육과정 개발 학교 세계시민교육 △컴비러기 아이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중등에서는 △전북미래학교로의 내딛음 △따뜻한 학교문화로 실현하는 미래교육 △미래교육의 시작 수업 혁신에서부터 등의 발표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소그룹 분임 토의에서는 패들렛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를 통해 2024년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해 가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IB교육,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등 전북미래학교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내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일까?’

전북대 중앙도서관, 15일 이호 교수 초청 인문학 강연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도서관장이준영)이 분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그것이 알고 싶다’, ‘알쓸인잡’, ‘유퀴즈온더블럭’ 등 다수의 예능·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호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이번 특강에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일까?’라는 주제로 지역민, 대학구성원 등과 소통한다. 강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북대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강연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모집인원은 사전모집 50명, 현장모집 50명이다.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nu.ac.kr/>)를 통해 9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자에게는 강연 관련 도서가 제공된다.

이준영 도서관장은 “이번 인문학 강연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고, 이러한 강연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063-270-4404~5)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학부모 지원·교육활동 보호 정책 공유

도교육청, 9~11월 14개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3개월 동안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한 학부모회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학부모협의회와 학부모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는 학부모회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는 박세훈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특강에 이어 전북교육청 학부모담당관의 ‘학부모 지원 정책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전북학부모협의회장 정유미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활동보호 강화 정책과 학부모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학부모회 역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의 주체로서 교권과 학생인권 이 모두 존중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전북도교육청이 3개월 동안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한 학부모회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학부모회 협의회는 지역내 학부모회가 연대해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해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설치된 단체다. 지난 7월 초대 회장으로 정유미 남원 학부모협의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한편 전북학부모회 협의회는 지역내 학부모회가 연대해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해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설치된 단체다. 지난 7월 초대 회장으로 정유미 남원 학부모협의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2023 전문대학 기관 평가 ‘인증’ 획득

전주기전대, 내년 8월 1일부터 5년간 자격 유지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실시한 2023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기전대학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5년간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 충족 및 우수한 교육·연구의 질을 갖췄는지와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자격을 갖추게 됐으며, 교육부 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

조희천 총장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이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의 준거로 활용되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이번 인증 획득은 대학 교육·연구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영역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은 전주기전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전주기전대학의 혁신과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캡 퍼스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